

농업계 특수전문대학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따른 정신병리 차이와 개인상담의 효과검증

이도균¹·노환국^{2*}·정달상³·안진선⁴

¹배재대학교 심리철학상담학과

²한국농수산대학 중소가축학과, ³한국농수산대학 수산양식학과

⁴한국농수산대학 교학과

Differences in Psychopathology and Effectiveness of Individual Counselling According to Learning Environment of Agricultural Specialized College Students

D. K. Lee¹, W. G. Nho^{2*}, D. S. Jeong², and J. S. An³

¹*Paijae University psychology philosophy counseling department, 35345, 155-40 Baejae-ro(Doma-Dong), Seo-Gu, Daejeon, Korea)*

^{2, 3, 4}*Korea National College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1515, Kongjwipatjwi-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54874, Korea*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researching on psych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e-specialized college students, in a specific educational environment, consulting some students who show maladjusted characteristics, verifying its effects and providing basic data for college life instructions.

The complete survey MMPI was conducted for 676 freshmen and juniors attending K agriculture-specialized college located in Jeollabuk-do. To analyze the results, basic statistics, bivariate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impleme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overall clinical scale was lower than 50 points, standard point, and freshmen showed higher depression (D), hysteria (Hy) and psychasthenia (Pt) in general. Such results are different from the other study results. It is considered an anxiety in early stage, resulted from a living in a dormitory. For the juniors who came back from one-year practice, anxiety about employment seems little because they are already employed. Second, The effects of personal consultation for maladjusted students were proved ($p < .01$). The students who

2 *교신저자 한국농수산대학 nhowgook@korea.kr

got consultation showed improvement effect from ‘very bad condition’ to ‘considerable depression’, which is low score. This study has a meaning in preventing from any accident, by screening maladjusted students who are supposed to learn in a specific situation, by relieving their symptoms through consultation and letting them concentrate on learning.

Key Words : College life adaptation, Depressed, Counseling, Hopelessness, Hopelessness Depression Symptoms

I. 서론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농업·농촌의 인력감소와 더불어 노령화를 초래하였고, 1993년 우르과이 라운드(UR, 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의 타결과 회원국 간의 무역관계에 관한 협정을 관리 감독하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활성화로 농업분야도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급변하는 국내·외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발전을 선도할 정예 농업 인력의 육성이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1994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현장중심교육을 실시할 순수한 농업대학의 설립 건의에 따라 1997년 한국농수산대학이 설립되었다.

FLanigan & Sutherland(2015)는 농촌의 지속가능성 위기가 드러나는 한 가지 측면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약화이며, 이 상황을 극복하려면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기된다고 하였다(김정섭, 김종인, 2016: 재인용)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주도할 정예 농업 인력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투철한 직업의식과 현장 중심의 지식, 기술, 경영능력 및 국제적 안목을 두루 갖춘 CEO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농수산대학은 특수

목적전문대학이다. 특수목적전문대학은 일반대학과는 달리 농업 CEO 양성이라는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등록금 지원은 물론 전원 기숙사생활, 특화된 교육과정, 해외연수, 졸업 후 창업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과 더불어 의무영농을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즉, 특수목적 전문대학에 진학을 한 학생들은 일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과는 많은 부분에서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일반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과 공통적인 특성으로, 대학입시를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많은 통제를 받던 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대학생활은 많은 개인적 자유를 경험하게 되며, 주변에서 그에 걸 맞는 역할기대와 책임을 요구받게 되면서 역할갈등과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장희숙, 2004).

또한 전원 기숙사 생활이라는 급격하게 바뀐 생활양식과 3년 동안 배워야 할 교과과정을 2년에 소화해야 하는 바쁜 교과과정, 농촌 지도자로서의 역할기대 및 책임의식들은 일반대학에 진학하는 일반학생과는 또 다른 특이점으로 적응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농·어업·산림 등 1차 산업에 종사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대학의 특성상 3년 학제 중 2년차에 실습을 병행한 현장학습으로 실무에 종사하여 교과공부와는 달리 일반인과 생활하며, 낯선 환경에 접하게 된다. 1학년 시기에는 대학이라는 자율적인 학습 환경에, 2학년 차에는 사회로 나아가 실무, 3학년 차에는 다시금 학교로 돌아와

학습을 하는 환경에 접하게 되어, 해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학습하여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한 학년에 400여명 밖에 되지 않은 인원과 작은 캠퍼스, 전원 기숙생활을 하는 학교의 규칙, 격년제로 같이 학습하는 선·후배 관계 등 일반 대학과는 다른 특수한 학교환경과 풍토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학교환경 및 풍토는 학생의 학습과 인격형성, 그리고 교육현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개개인이 환경을 지각하는 양태는 각기 다르며, 개개인의 지각이 집중되고 공감적으로 어떠한 지향성을 갖게 될 때, 학교풍토와 이를 표출하는 행동에 비교적 강한 영향원으로 작용하게 된다(김현조, 1997).

즉, 특수한 상황에서의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대학환경풍토는 학생의 학업 수월성과 정의적 행동의 형성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대학생활 적응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게 된다(권혜진, 2007).

1년 사이로 급변하는 학습의 형태와 풍토는 이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쳐 정신건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수대학의 설립목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정체감이나 진로선택의 결과에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MMPI(다면적 인성검사)를 실시하여 재학생들의 정신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정신건강에 취약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상담을 실시하여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고 학습에 전념함으로써, 향후 이들의 진로인 농업현장에서의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적 자원을 확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둔다.

연구목적 1. 학습 환경이 다른 학년 간 정신건강은 어떠한가?

연구목적 2. 우울에 따른 개별상담의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시기

연구대상은 한국농수산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으로써 신입생은 2016년 2월 24일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재학생은 3월 2일 첫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조사에 응한 대상은 전체 676명으로 1학년 375(55.5%)명, 3학년 301(44.5%)명 이었다. 이들의 성비는 여학생 137명(20.3%), 남학생 539(79.7%)명 이었다.

Table 1. The sociological background of the subjects

	성별		전체
	여학생	남학생	
1학년	82(21.9%)	293(78.1%)	375
3학년	55(18.3%)	246(81.7%)	301
전체	137(20.3)	539(79.7%)	676

2. 검사도구 및 내용

가. MMPI-2(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II)

MMPI-2는 1940년을 전후로 개발된 이래 임상 장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자기보고형 성격 검사인 MMPI를 1989년에 현 실정에 맞게 재표준화한 검사이다(Butcher, Dahlstrom, Graham, Tellegen, & Kaemmer, 1989). MMPI의 문항은 '그렇다', '아니다'의 중복이 없는 567개 진위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당도 척도, 임상척도와 소척도, 내용 척도, 보충 척도 및 성격병리 5요인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MMPI-II 에서 비정상적인 행동과 증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임상진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표적인 척도인 임상척도 만을 분석하였다.

나. 무망감 우울증 척도

상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로는 이영호(1999)가 개발한 무망감 우울증 척도로 현재 신경정신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척도이다. 검사의 측정방식은 자기보고식 리커트 척도로 ‘아니다’ 0점, ‘가끔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 ‘항상 그렇다’ 3점으로 총점의 범위는 0점~60점이며, 우울증상을 나타내는 하위 척도와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척도의 신뢰도는 전체 .947로 매우 신뢰로운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척도는 증상의 분류에 따라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자존심 저하 증상으로 구분된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신뢰도는 모두 .756~.918로 결과를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2. Sub-factors and reliability

측정 하위요인	문항	신뢰도
인지적 증상 차원	2, 6, 12, 15, 19	.880
정서적 증상 차원	3, 5, 8, 16, 17	.918
동기적 증상 차원	1, 9, 11, 14, 20	.806
자존심 저하 증상차원	4, 7, 10, 13, 18	.756
전체		.947

기존 연구의 토대로 우울 증상을 측정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Table 3. Scope of depression by question score

점수범위	증상의 정도
25~29	무망감 우울 증상이 약간 있음
30~34	무망감 우울 증상이 상당히 있음
35점 이상	무망감 우울증상이 매우 심함

3. 상담대상자의 선별 및 상담 방법

효과검증의 경우 임상심리 전문가와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보유한 임상심리사가 MMPI-II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우울(d)증상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반사회성(Pd), 피해사고(Pd), 강박증(Pt) 정신분열증(Sc), 경조증(Ma)등 복합증상을 감안하여, 고 위험군으로 밝혀진 상담대상자 30명을 선별하였다. 상담대상자를 대상으로 먼저 MMPI-II 결과를 설명한 후 상담 동의를 받고 상담목표를 수립하였다. 상담은 3명의 상담사로 구성되었으며, 담당학생을 배정하여 5~12회의 상담을 매주 1회 1시간~1시간 30분 동안 실시하였다. 상담 종료는 학생과 상담사 간의 협의에 의해 종료하였고, 사후 조치로는 SNS를 사용하여 상태를 점검하였다.

상담시작과 동시에 우울감 무망감 척도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3~4월 실시), 사후검사는 상담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10월 중에 실시하였으나, 자퇴, 심리검사 측정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20명이 실시하였다. 결과분석은 사전·사후검사를 모두 마친 20명을 분석하였다.

4. 분석방법

자료 분석에는 SPSS Ver 2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병리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정신병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변량 상관분석을, 재학생과 현장실습을 마치고 온 3학년 학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독립표본 t검정, 상담의 효과검정을 하기 위한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학년별 임상척도별 기술통계

2016년 MMPI 검사 참여자 676명에 대한 학년별 임상 척도별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42.7점에서 50.0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평균점수는

원점수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 T 점수로 변환된 점수이며, 40~60점이 증상이 없는 일반군으로 분류된다. 임상척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3학년보다 평균점수가 모두 높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성-여성성(Mf)이 50.0으로 가장 높았고, 경조증(Ma) 48.6점, 내향성(Si) 47.5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사회성(Pd) 43.1점으로 가장 낮았다. 즉,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들은 평균점수가 50점 이하이며, 이는 타 대학교의 학생보다 정신건강이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임상척도별로 T점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건강염려증(Hs)은 30~80점, 우울증(D)은 30~86점, 히스테리(Hy)는 30~74점, 반사회성(Pd)은 30~78점, 남성성-여성성(Mf)은 30~76점, 편집증(Pa)은 30~81점, 강박증(Pt)은 30~80점, 정신분열증(Sc)은 30~74점, 경조증(Ma)은 30~78점, 사회적 내향성(Si)은 30~80점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Table 4. Study subjects clinical scope technical statistics (N=676)

	학년	N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평균(M)	1	375	46.3	46.1	46.9	43.1	50.0	46.4	46.6	43.7	48.6	47.5
	3	301	45.7	44.5	45.7	43.0	49.1	46.5	45.1	42.7	48.8	45.9
표준편차(SD)	1	375	6.0	9.8	6.8	7.5	9.6	7.3	8.7	6.7	8.3	12.1
	3	301	5.9	8.6	6.6	8.0	9.3	7.0	8.5	6.6	8.2	11.7
최소값(MIN)	1	375	32	30	30	30	30	30	30	30	30	30
	3	301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최대값(Max)	1	375	80	86	74	78	76	81	80	70	75	80
	3	301	76	75	70	75	76	75	78	74	78	80

2. 학년 간 임상척도별 차이

특수대학의 특성상 1학년의 경우 신입생으로서 학습과 기숙사 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또한 3학년의 경우 2학년 시기에 국내외로 1년간의 현장 실습을 하고 학교로 복귀하는 시점으로, 이들은 졸업과 더불어 사회로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각기 다른 입장에 처해 있는 이들의 임상적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10개의 임상척도 중 D(우울), Hy(히스테리), Pt(강박증)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p<.05$), 1학년들의 증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의 임상척도 중 강박증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떤 생각이나 장면이 떠올라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증상으로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신입생들은 초, 중, 고교를 거치면서, 왕따와 같은 경험을 직, 간접적으로 하면서 자라온 세대로, 타과, 선배, 낯선 학우 등과 24시간 개인적인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히스테리와 우울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

히스테리는 짜증스러운 성격을 나타내는 말로, 주로 과도할 정도로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 즉, 낮은 사람들과 낮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조심스럽고 두려운 경험일 수 있다. 따라서 실수를 하지 않고 대인관계를 잘 하며, 자신을 좋은 존재로 인식받길 원하는 자체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긴장된 상태를 야기하며,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히스테리와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5. The independent t-test of clinical scale between grades

	집단	N	M	SD	t	p
Hs (건강염려)	1학년	375	46.30	6.04	1.348	.178
	3학년	301	45.67	5.93		
D (우울)	1학년	375	46.07	9.82	2.220 (*)	.027
	3학년	301	44.48	8.55		
Hy (히스테리)	1학년	375	46.94	6.80	2.301 (*)	.022
	3학년	301	45.74	6.59		
Pd (반사회성)	1학년	375	43.06	7.47	0.061	.952
	3학년	301	43.02	7.98		
Mf (남성성-여성성)	1학년	375	49.99	9.56	1.274	.203
	3학년	301	49.06	9.32		
Pa (편집증)	1학년	375	46.38	7.31	-0.143	.887
	3학년	301	46.46	6.98		
Pt (강박증)	1학년	375	46.59	8.67	2.202 (*)	.028
	3학년	301	45.13	8.51		
Sc (정신분열증)	1학년	375	43.73	6.66	1.915	.056
	3학년	301	42.75	6.60		
Ma (경조증)	1학년	375	48.57	8.27	-0.407	.684
	3학년	301	48.83	8.18		
Si (사회적내향성)	1학년	375	47.47	12.06	1.729	.084
	3학년	301	45.88	11.70		

* p<.05

3. 임상척도별 적응곤란의 예상 학생

적응곤란 예상학생이란 10개의 임상척도 상에서 T점수가 70점 이상인 척도가 하나 이상일 경우로 정의하도록 한다(김중술, 1998). 또한 신경정신과 진료현장에서의 유용한 지필검사 소개서의 한국판 연구의 해석지침에 따르면, 상위 16%에 해당되는 T점수 60점 이상은 ‘약한 정도의 증상’, 상위 7%에 해당되는 T점수 65점 이상은 ‘상당한 정도의 증상’, 상위 2%에 해당되는 T점수 70이상은 ‘매우 심한 증상’으로 해석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T점수가 65점 이상에 해당 될 때,

각 척도가 의미하는 신경증적 징후가 상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T점수가 65점 이상이라고 해도 대학생과 같이 정상집단에서의 반드시 적응곤란이 예상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반드시 정신병적 징후가 있거나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대학생이 속한 사회의 적응과 관련된 정신과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수목적 대학의 학생들이 대표적 임상 척도별로 적응곤란이 예상되는 영역을 알아보기 위해 각 척도별로 T점수 65점~69점(상당한 정도의 증상) 이상과 70이상(매우 심한 증상)의 학생 수와

비율을 알아본 결과 <Table 6>과 같다.

전체적으로 모든 척도에서 3학년 보다 1학년이 증상이 심한 학생이 많았다. 임상척도별로 전체학생 중 3%이상을 나타내는 척도를 살펴보면, Si (내향성)척도가 60명(8.9%), Mf(여성성-남성성)척

도가 37명(5.5%), D(우울증)척도가 35명(5.2%), Pt(강박증)척도가 25명(3.5%)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고, 이중 명확한 병리적 증상을 나타나는 척도는 D척도와 Pt척도였다.

Table 6. Percentage of students expected to be difficult to adjust by clinical scale n(%)

학년	인원	증상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1 학년	375	심함 (t<65~69)	6 (1.6)	13 (3.5)	6 (1.6)	1 (0.3)	22 (5.9)	8 (2.1)	8 (2.1)	4 (1.1)	13 (3.5)	21 (5.6)
		매우 심함 (t<70)	2 (0.5)	12 (3.2)	2 (0.5)	6 (1.6)	5 (1.3)	4 (1.1)	7 (1.7)	1 (0.3)	5 (1.3)	16 (4.3)
3 학년	301	심함 (t<65~69)	2 (0.7)	8 (2.7)	2 (0.7)	4 (0.3)	6 (2.0)	3 (1.0)	4 (0.3)	2 (0.7)	12 (4.0)	16 (5.3)
		매우 심함 (t<70)	2 (0.7)	2 (0.7)	1 (0.3)	3 (1.0)	4 (0.3)	4 (0.3)	6 (2.0)	1 (0.3)	4 (0.3)	7 (2.3)
합계	676	심함 (t<65~69)	8 (1.2)	21 (3.1)	8 (1.2)	5 (0.7)	28 (4.1)	11 (1.6)	12 (1.8)	6 (0.9)	25 (3.7)	37 (5.5)
		매우 심함 (t<70)	4 (0.6)	14 (2.1)	3 (0.4)	9 (1.3)	9 (1.3)	8 (1.2)	13 (2.7)	2 (0.3)	9 (1.3)	23 (3.4)
총계		심함~매우심함	12 (1.8)	35 (5.2)	11 (1.6)	14 (2.1)	37 (5.5)	19 (2.8)	25 (3.7)	8 (1.2)	34 (5.0)	60 (8.9)

4. 상담의 효과검증

가. 임상척도의 관계분석과 상담대상선발

학생상담에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생을 선별하는데 임상척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중 모든 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변인은 D(우울)척도이다($r = -.311 \sim .683$), 우울증의 경우 정서적 이상 징후 및 사고의 이상 징후, 신체적 행동장애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자기존중감, 수면 및 식욕, 에너지의 감소, 대인 기피행동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해란, 2003; 송지영·이광철, 2002; 이미경 외, 2004; Jack, 1991).

또한 우울은 어느 특정 질환에서 보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정신질환과 관계가 있으며, 성적저하,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 휴학 등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며, 자살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원인이다. 따라서 학생상담이 필요한 주요 변인으로써 우울을 선택하였고, 임상척도 D(우울)의 T점수가 65이상(심한 정도) 35명을 상담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나. 상담의 효과검증

개인상담의 효과검증을 한 결과는 다음 <Table 8>, <Table 9>와 같다.

전체 우울감에 대한 분석결과 유의수준 .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사전검사에서 36.85로 '매우 심한 상태'에서 '우울증상이 상당히 있음' 상태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개인상담의 효과로 우울의 정도가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위변인별로 분석한 결과, 인지적 증상을 제외한 정서적증상과 동기적증상은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자존심저하증상은 유의수준 .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인지적 증상을 제외한 정서적(p<.05), 동기적(p<.05), 자존심저하 (p<.01)에 영향을 받는 우울의 정도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Table 7. Bivariate correlation analysis of clinical scale (N=679)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Hs	1	.418**	.780**	.350**	.058	.262**	.400**	.421**	-.006	.161**
D	.418**	1	.420*	.430**	.137**	.345**	.683**	.527**	-.311**	.687**
Hy	.780**	.420**	1	.426**	.090*	.238**	.376**	.344**	-.063	.073
Pd	.350**	.430**	.426**	1	.115**	.423**	.510**	.496**	.017	.213**
Mf	.058	.137**	.090*	.115**	1	.201**	.175**	.205**	.028	.118
Pa	.262**	.345**	.238*	.423**	.201**	1	.504**	.509**	.184**	.219**
Pt	.400**	.683**	.376**	.510**	.175**	.504**	1	.734**	.015	.561**
Sc	.421**	.527**	.344**	.496**	.205**	.509**	.734**	1	.195**	.478**
Ma	-.006	-.311**	-.063	.017	.028	.184**	.015	.195**	1	-.309**
Si	.161**	.687**	.073	.213**	.118	.219**	.561**	.478**	-.309**	1

Table 8. The entire paired t-test of hopelessness depression

하위요인	구분	N	M	SD	t	p
무망감 우울증	사전검사	20	36.85	11.67	3.064 (**)	.006
	사후검사	20	31.85	7.74		

** p < .01

Table 9. Total pre- and post-mean of hopelessness depressions symptoms

하위요인	검사집단	N	M	SD	t	p
인지적 증상	사전검사	20	1.74	.68	1.776	.092
	사후검사	20	1.59	.54		
정서적 증상	사전검사	20	1.76	.70	2.300 (*)	.033
	사후검사	20	1.48	.46		
동기적 증상	사전검사	20	1.98	.64	2.480 (*)	.023
	사후검사	20	1.68	.41		
자존심 저하 증상	사전검사	20	1.89	.58	3.178 (**)	.005
	사후검사	20	1.62	.49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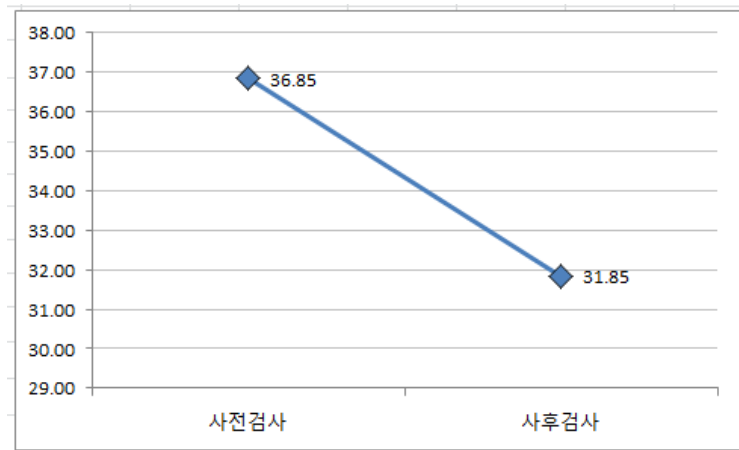


Fig. 1. Total pre- and post-mean of hopelessness depressions symptoms

IV. 요약 및 결론

대학생들은 새로운 대학환경에의 적응과 학업적인 성취가 새로운 발달단계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선결조건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MMPI(다면적 인성검사)의 결과는 신입생과 사회에서의 실습을 맞추고 학교로 복귀한 3학년 모두 10개의 임상척도에서 표준화된 평균점수인 50점보다 모두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울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신입생(D=6.7%)과 재학생(D=3.4%)로 연구마다 척도가 달라 일률적인 비교는 불가하지만 Lee(2008)의 연구에서는 7점 척도에 4.00의 평균으로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들이 우울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우울성향 유병률을 19.8%로 나타난 것으로 보면(Lee MH, 1995), 이러한 점수분포는 특수농업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양호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즉, 우울성향을 있다는 판단은 평균점수에서 1 SD~ 1.5SD 일 때 '증상이 약간 있다', 1.5 SD~ 2 SD일 때 '증상이 심하다', 2SD 이상일 때 '매우 심하다'라고 판단한다.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들의 우울증상의 평균

(1학년 M=49.07, 3학년 M=44.48)과 표준편차(1학년 SD=9.82, 3학년 SD=8.55)는 우울증상 유병률을 진단하는 65점에 못 미친다. 또한 우울증상을 보이는 학생도 1학년 25명(6.7%), 3학년 10명(3.4%)로, 간호대학의 19.8%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학년 간 MMPI 임상척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우울(D), 히스테리(Hy), 강박증(Pt)에서 모두 신입생인 1학년이 높았다($p < .05$). 이러한 결과는 졸업 후 농업현장에 나가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3학년보다, 신입생들이 달라진 학교 환경에 적응하기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대학생의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이다. 이신형외 5인(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취업을 앞둔 졸업생들이 신입생보다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성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농업계 특수대학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집에서 생활하던 고등학교와는 달리 낮은 환경에서 새로운 학습을 하며, 전원 기숙생활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학습과 기숙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동료, 선배, 타과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입학초기에는 학습상황을 겪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더욱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울성향이 심하고 복합증상이 심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실시한 결과, 그 효과가 입증 되었다($p < .01$). 상담을 받은 학생들은 ‘매우 심한 상태’에서 ‘우울 증상이 상당히 있음’상태로 완화되었으며, 여러 방면에서 각기 다른 대상을 상대로 행한 상담의 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그 효과가 증명되었고, 본 연구도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대학생활은 학교에서 사회로 접하는 과도기적 기간이다. 이 시기에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은 사회생활적응과 개인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울성향이 높은 특수대학생의 목표지향적인 선별과 개별상담은 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연구가 일반적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는 특수목적의 지닌 농업계 특수대학을 대학생들 연구한 점에 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는 현실적인 취업과 가정을 형성하기 전 단계로 많은 대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이 아닌 기피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정신병리를 탐구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있다. 또한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신건강이 불충분한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생활중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강한 개인 및 집단, 학교사회문화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V. 참고문헌

1. 권혜진. (2007). 대학생의 대학환경풍토지각과

대학생활 적응 및 학업성취도간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김정섭, 김종인. (2016). 귀농·귀촌 인구 전망과 정책방향. 농촌지도와 개발 24 : 33-47
3. 김중술. (1998). 다면적 인성검사. 서울대학교 출판부.
4. 김현조. (1997). 대학생이 지각하는 대학풍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이영호. (1999). 한국판 우울형용사 체크리스트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2) : 151-164.
6. 정범모. (1976). 교육풍토 : 그 종합적 연구를 위한 이론적 탐색. 한국행동과학연구소 행동과학연구. 9.
7. 정철영, 이용환, 나승일. (2002). 21세기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방안.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산업교육과
8. 윤정섭. (2002). 신경정신과 진료현장에서 유용한 지필검사 소개서. 대한신경정신과 개원 의협의회 신경정신과 진료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출판.
9. 김해란. (2003). 여성 우울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학생생활연구. 23 : 17-41.
10. 송지영, 이광철. (2002). 여성에게 왜 우울증이 많은가?. 경의의학, 18(3,4) : 170-181.
11. 박재규, 이정림. (2011). 한국 성인 남녀의 우울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보건과 사회과학. 29 : 99-128.
12. 김재환외 8명. (2014). 임상심리검사의 이해 (2판). 학지사
13. 이신형, 정희수, 이동욱, 박기흠, 윤주영, 박정재. (2009). 일개 대학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의 영향. 대한가정의학회. 796-804.
14.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이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1), 101-121.

15. Jack, D. C. (1991). *Slicing the self : Women and Depression*, New York: Harvard University Press.
16. Butcher, J. N., Dahlstrom, W. G., Graham, J. R., Tellegen, Y. S., Kaemmer, B. (1989).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Manual for administration and scoring*.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7. Lee, H. I. (2008).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da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22): 97-107.
18. Lee, M. H. (1995). *Depression and related variables in a university freshman [dissertation]*.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